



## 이해와 배려, 상호존중의 문화 꽃을 피우다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한 상호존중보고대회 무사히 마쳐  
시행 1년 만에 직종 간 이해와 상호존중을 위한 토대 마련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은 지난 9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대강당에서 '2011 상호존중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현 병원장, 차상훈 부원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 윤을식 교육수련위원장 등 3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상호존중운동본부 윤을식 본부장이 지난 1년 간 진행한 상호존중 캠페인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상호존중 연중 캠페인으로 고대병원의 직장문화가 개선되었다는 반응이 전체 설문문의 77%, 동료직원으로부터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전체의 70%에 달해 안산병원 상호존중 캠페인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재현 원장은 2011 상호존중 캠페인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상호존중을 통해서 교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보고에 이어 각종 시상식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 캠페인 동영상에 출연한 '배우'에 대한 시상식이 주목을 받았다. 남우주연상에는 '오스카 교수' 역을 열연한 순환기내과 송우혁 교수가, 여우주연상에는 '분노의 보호자' 역을 열연한 영양팀 박진좌 교직원이 수상했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송우혁 교수

가 영상메세지를 남겨 교직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상호존중 굿파트너에는 내시경실 권은림 간호조무사, 영상의학과 한현중 주임방사선사, 비뇨기과 노태일 전공의가 선정됐고, 8월의 굿파트너에 원무팀 손미영 교직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유애 임상병리사, 정형외과 한지훈 전공의가 선정됐다. 또 한해동안 상호존중캠페인을 위해 노력했던 친절리더 정춘희 팀장, 고객센터팀 박소영 교직원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상호존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종별 인터뷰 영상과 상호존중패러디광고, 상호존중 동영상 3, 4탄 시연, 마취통증의학과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준비한 '티안나'의 공연이 이어져 교직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상호존중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6일 교직원간 상호존중의 풍토를 진작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지난 1년간 2011 교직원 상호존중의 언약식, 호칭가이드 제안, 매월 굿파트너 선정,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Contents

2p 한국인의 만성질환  
위장관질환



3p 간호부체육대회  
통통한마당



3p 병원사용설명서  
불임치료



4p 사랑의리퀘스트  
소녀시대



5p 극한의현장을찾아서  
산업위생관리기사



6p 헬스가이드2  
치아외상주의



상호존중캠페인



언제 어디서나  
Mobile 고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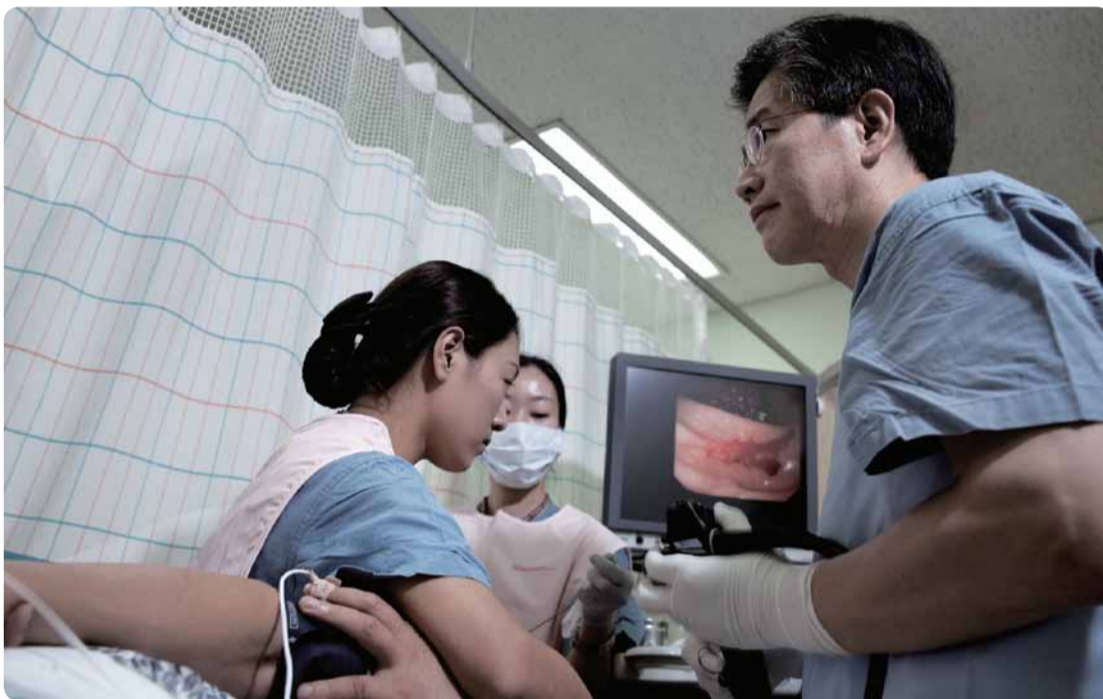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  
<http://m.kumc.or.kr>

# 내시경 치료에서 협진을 통한 수술치료까지 통합 진료 시스템으로 모든 질환을 잡는다

당뇨병    고혈압    혈관질환    **위장관 질환**    간질환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10위중 7가지가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평생 병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5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혈관질환, 위장관질환, 간질환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는 바로 위장관 질환이다. 서구화되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한국인에게 위염, 위궤양, 장염 등과 같은 위장관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위암은 한국인 암 발병률 1위이며, 대장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위장관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짜고 매운 자극적인 한식과 서구화되고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등 위장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도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장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 번에 실시하는 내시경검사

우선 위장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실시되는 검사는 바로 내시경검사이다. 내시경검사는 위염, 위궤양, 대장 질환 등과 같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관에서 발생한 조기암은 경우에 따라 최신 치료법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점막에 국한 되어 있는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인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비교적 침습적이지 않으면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조기 암치료법 ESD는 치료시간이 병변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30분에서 2시간 내로 비교적 짧고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며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최근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선별을 위하여 점막하층과 근육층, 림프절이나 주변 장기까지 볼 수 있는 초음파내시경을 통한 정밀한 진단이 내시경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센터는 지난

20년간 월 평균 1000례 이상, 연간 12,000례 이상의 조기 위암 및 대장 용종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그 어느 곳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 내시경 시술과 수술을 통한 협진

또한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센터는 위암, 대장암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대장항문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등과 함께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용종제거를 통한 대장암의 예방부터 조기 대장암 및 진행성 대장암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환자의 모든 위험을 차단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암치료를 실현하고 있다. 각 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제시함으로써 암치료를 따른 수술 후 생활 변화를 최소화하는 선진적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위암, 대장암 협진 시스템은 빠른 회복을 위해 최소침습 수술을 시행해 기존 수술방법보다 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치료 내시경을 이용한 대장 용종제거 뿐만 아니라 대장암 수술에 있어서도 최소침습 수술을 실시하여 향상된 효

과를 보고 있으며,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암수술이 가능하다. 또 암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 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협진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내시경을 통한 최상의 진단, 조기암 치료와 더불어 암의 진행 정도에 따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는 선진적 의료시스템이다.

### 폭 좁은 소장도 '소장내시경'으로 치료


소장은 길이가 약 6m로 대장의 3~4배나 되어 진단과 치료가 그만큼 어렵다. 과거에는 의료진이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 절개 수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캡슐내시경이 개발되어 소장 질환의 진단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소형비디오가 장착된 캡슐을 환자가 복용하면 몸 안에서 소화관을 촬영하게 된다. 장의 연동운동을 따라 캡슐은 자연스럽게 소화관을 통과하는데, 평균 8시간 동안 5만여 장의 사진이 촬영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소장질환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장내시경'이 등장해 소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내시경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소장내시경은 소장 조영술과 복부 영상촬영 검사와 같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진단 정확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소장 조영술과 복부 영상촬영 검사의 진단 정확도는 15~20% 정도였는데, 소장내시경의 진단율은 80~90%로 매우 향상되었다. 또한, 소장내시경은 진단과 동시에 용종 제거나 지혈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고대안산병원 내시경센터는 위·대장 내시경과 함께 소장내시경·캡슐 내시경 등 모든 소화관 질환의 진단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와 긴밀한 협진이 가능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 맑은 가을하늘에 울려 퍼진 간호부 화합의 한마당

안산병원 간호부, 2011 간호부 통통한마당 통해 이해와 단합의 자리 가져

간호부(실장 김정숙)는 지난 9월 17일 안산에 위치한 해양연구원에서 2011년 간호부 통통한마당을 개최하고 간호부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통통한마당은 간호부의 모든 교직원이 참여, 홍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피구, 경보 등 다양한 시합을 펼쳤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하나가 되는 자리를 가졌다. 

글·사진 | 원대기자 박준우(시설팀)



## 병원사용설명서

# HOW TO USE

## 불임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난임의 원인을 찾는 검사에서부터 진단, 치료까지

보통 불임, 혹은 난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불임클리닉을 찾아 전문의와의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권유된다. 그렇다면 불임클리닉에서는 어떤 검사와 치료를 통해 불임을 극복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알아보자.



### 불임, 진단부터 철저히 해야 치료법 찾는다


불임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불임원인으로 여성에서 난소기능의 저하나 배란장애, 난관손상, 자궁이상 등 다양하며 뚜렷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많다. 남성요인에 의한 불임도 약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즉, 부부에 따라 불임의 원인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임치료를 위한 검사로는 기본적인 혈액검사(호르몬검사, 골반초음파 검사, 남성의 정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등)가 있다. 검사의 방법과 종류는 치료를 받는 부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된다.

### 원인에 따른 치료법 적용해야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불임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치료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에서 활동성이 우수한 정자를 얻어 여성의 자궁 안에 주입하는 시술로서 비교적 간편하고 정도의 임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에서는 여성에게 난포성장촉진제(주사)를 사용하여 비교적 여러 개의 난자를 자라게 하는데 주사를 맞는 기간이나 용량은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난포의 수나 크기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바늘을 이용해 난자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만든 후 이를 여성의 자궁 내에 이식하는 시술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확률은 70~80%로 높은 편이나, 실제 임신 성공율은 한 주기 당 약 25~30% 정도이다.

### 불임클리닉과 정부의 지원통해 극복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이며, 2009년 한 해 동안 약 19만 명이 난임으로 진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외수정의 경우 1회 18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추가로 1회 1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불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불임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불임부부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031-412-5080) 도움말 | 불임센터 이경옥 교수



## 이달의 소식

## 소녀시대, 캄보디아 소녀의 소원을 이룬다

고려대 안산병원, KBS, 어린이재단 후원으로 심장병 수술 앞둔 소녀 찾아 깜짝 방문!!



고려대 안산병원에 소녀시대가 찾아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녀 노브 스테이리(Roeun Srey Lees, 11세)의 쾌유를 기원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앞둔 스테이리 양은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지난 7월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실시된 소아청소년과 장기영 교수의 해외 무료 진료 활동으로 심장병을 진단받은 바 있다. 스테이리 양의 가족들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수술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어려운 사정을 들은 소녀시대와 KBS, 어린이재단, 고려대 안산병원은 스테이리의 병원비를 후원, 치료가 어려운 외국 소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지난 9월 7일 입국한 스테이리 양은 입국과 동시에 평소 팬이었던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 윤아, 효연의 깜짝 방문으로 또 하나의 기쁨을 선사받았다.

스테이리 양은 9월 8일 흉부외과 신재승 교수의 집도아래 무사히 수술을 마쳤으며 9월 말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장기영 교수는 “스테이리 양은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지만, 한국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녀시대 멤버들의 따뜻한 방문은 낯선 땅에서 수술을 앞둔 스테이리 양에게 크나큰 선물이었으며,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

## 클릭! 이 사람

우리병원의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 61병동의 날개 없는 신규천사, 박주연 간호사



### Q. 발령받았던 날 기억하세요?

지난 4월 꿈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 그것도 황금빛 호랑이가 저를 덮치는 꿈을 꿴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꿈인 것 같다고 하고, 호랑이 꿈은 처음이라 너무 생생해 하고 있는데, 그날 발령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간호사 유니폼의 호돌이 마크처럼 고대의 상징인 호랑이가 발령 나는 것을 알고 먼저 불러준 것 같아 신기했는데, 정규발령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호랑이 꿈을 꿴습니다. 호랑이 꿈을 다시 꾸니, 반갑기도 하면서 병원과 인연이 깊을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의 병원 생활이 기대됩니다.

### Q.지난 몇 달간의 생활을 정리하면?

신규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61병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는 것은 없

고 손은 느리고 일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병동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실망도 하면서 좌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리셉터(후배간호사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간호사를 칭함) 선생님께 많은 조언을 듣고, 일을 배워나가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선배간호사의 장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부분들을 배웠다기보다는 따라한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고, 이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VOC(고객의소리)라는 낯선 말을 처음 접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VOC 칭찬 글이 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긴지 모르고 어안이 병병해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잘 웃으시던 환자분께 그냥 웃음으로 대답해드린 것 밖에 없는데 그걸 보시고 환자분께서 칭찬 글을 올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사소한 배려, 미소 한번이 칭찬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간호의 여러 정의 중에 ‘정서적 지지, 돌봄’ 이 두 단어가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막연히 다가왔던 단어들 새롭게 제 마음속에 되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 Q.고려대 교직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병동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학원도 가고, 제가 일하는 분야에 전문인으로 우뚝 성장하고 싶어서 대학병원이란 곳에 지원을 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신규간호사라 배움에 또 배움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적극적인 성격이라 활동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병원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분야의 일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

글, 사진 | 원대기자 한혜영 (간호부)



# 큰 일교차, 당연히 환절기 감기다? 아니다!!!

## 알레르기성 질환, 폐렴 등과 증상이 유사할 수도 있어



아침, 저녁의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지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환절기가 예년보다 빨리 다가왔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신체 리듬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특히 일교차가 심해질수록 신체 면역능력이 저하되기 쉬워 감기와 같은 질병에 약해진다. 감기는 자주 걸리는 만큼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다른 질병과 증상이 유사해 감기가 아닌데 감기로 오인하고 간단히 감기약만 복용했다가는 다른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나 60대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더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 아이들의 감기, 혹시 다른 질병은?

아이들의 감기 증세를 보면 열이 나거나 호흡기계 감염으로 인한 증상, 즉 목 아픔과 콧물, 기침이 주된 증상이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모들은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나 비치해 두었던 감기약을 복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약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아이가 견디기 어려운 고열인 경우, 일반적인 감기 증상 외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구토나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급성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탈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중이 줄거나 입술이 바짝 마르는 등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감기증상에 두통이 심하거나 뒷목이 당기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될 경우 뇌수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으로 나누어지며 세균성 수막염은 증상이 심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 전형적인 감기증상 없이 고열만 지속되는 경우 요로 감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그냥 감기가 아닌 알레르기성 질환

학생이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아침의 찬 공기를 맞으며 등교나 출근하기 마련이다. 만약 환절기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무심코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시기에 따라 찾아오는 알레르기 질환인 경우 감기약을 복용해도 증세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으로 콧물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 알레르기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며, 그에 따라 답답함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업 혹은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콧물, 코막힘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 60대 이상의 고령자, 폐렴 주의

건강한 성인에서 감기 증상은 보통 일주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 폐렴으로 발전해 증세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끓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노인들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하지만 고령자에서 증상만으로 단순 감기와 폐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호흡기 증상 보다는 미열과 함께 전신쇠약감이나 식욕저하 등에 매모호한 증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이 어려운 경우, 감기와 유사하지만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나 이유 없이 입맛이 없어지고 전신쇠약감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가족들 역시 환절기에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외출 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복장과 위생 관리 역시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움말 |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 극한의 현장을 찾아서

# 섭씨 1600도의 용광로, 땀과 열정으로 이겨낸다

## 산업의학과 산업위생관리기사



새벽 5시 30분, 어느 제조공장의 직원탈의실 앞에 도착해 있다.

아직은 이른 새벽이지만 상기된 표정의 직원들이 속속 들어선다. 바로 6시에 근무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다. 작업시작과 함께 환경측정이 시작되므로 작업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한걸음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또 작업자들과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조공장 용광로의 발강계 녹아있는 쇳물은 섭씨 1600도에 달한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동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쇳물을 옮기고 붓는 과정만은 사람의 손이 꼭 닿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고온 환경에서 어떤 유해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공기포집은 용광로와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용접, 도금, 염색,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은 무수히 다양하다. 시야를 뿌연게 하거나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냄새를 만나는 건 익숙한 일이다. 때로는 불쾌하고 역한 냄새를 피할 수 없는 곳도 있지만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 절대 빼먹을 수 없다.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외부로 얼마나 어떻게 빠져나가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 굴뚝에 오른다. 굴뚝의 높이는 10미터를 훌쩍 넘긴다. 대부분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겨우 한사람만 통과 할 수 있는 가이드에 의지해 포집기가 담긴 가방을 매고 지독한 발품을 팔아야 한다. 굴뚝뿐만 아니다. 환기를 위해 천정에 설치한 고창으로 가는 길은 미끄럽고 경사진 공장지붕을 통과해야만 한다. 한여름에는 50도를 오르내리는 복사열과 겨울에는 살을 에는 칼바람이 애를 먹이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곳이다.

이렇듯 공장에 들어서면 안가는 곳이 없다. 더구나 8시간동안의 공기포집이 종료 될 때 까지 공장 구석구석을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공장의 1층은 일반건물의 2~3층 정도의 높이 인걸 감안 하면, 보통 5~6층 정도로 설치된 공장이라면 12층 정도의 높이를 오르내리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포집된 공기가 실험실로 보내지는 시간까지 끊임없는 노력이 반복되는 작업환경측정 현장에는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입을 기름때와 함께 그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다.

글·사진 | 원대기자 고재철(산업의학과)





## 천고마비의 계절, 미각 즐기려다 치아 잃을 수도

딱딱한 껍질이 있는 음식 치아 외상남기고 치주염, 충치 유발할 수도



꽃게와 대하 등 갑각류, 치아외상 주의

가을철 별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하, 즉 새우 요리다. 하지만 대하를 섭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껍질이다. 속살만 골라먹기는 하지만, 보통 껍질까지 바삭 구워 먹기도 하는데, 이 때 새우의 딱딱한 껍질이나 수염이 치아, 잇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치아에 남아 충치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이다. 꽃게 역시 음식으로 먹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단단한 껍질 때문에 치아외상, 잇몸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 출혈을 방지하기보다는 가까운 약국에서 잇몸, 치아 상처치료제를 바르고, 눈에 보이는 상처도 항생제를 복용하는 등 올바른 치료를 받아 잇몸과 치아의 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치아의 중간이


나 치아뿌리와 가까운 곳에서 골절이 발생되었다면, 치아의 신경, 잇몸의 혈관 등에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신경에 상처가 난 경우는 전문적인 신경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또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 복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1시간 내에 신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치아의 과도한 사용은 치아교모증 유발

대하와 꽃게와 같은 갑각류의 음식뿐만 아니라 밤,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먹을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치아를 이용해 껍질을 깨는 경우, 치아와 잇몸, 턱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 만약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치아를 사용하게 되면 치아교모증이 올 수도 있다. 치아교모증이란 치아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는 에나멜질 또는 내부의 상아질 일부가 닳아 없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치아교모증이 오게 되면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에 민감해지는데 자각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병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40, 50대의 경우 앞니의 끝부분과 어금니의 돌기 부분부터 증세가 올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신경에 손상이 발생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 있다. 턱관절 장애 역시 무리하게 견과류를 씹다가 발생할 수 있다. 턱관절은 모든 아래턱뼈와 옆머리뼈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반복된 동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무리를 주게 되면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이 이상뿐만 아니라 머리, 얼굴, 목 부위의 통증을 유

발하며, 이 때문에 씹는 기능 자체가 어려워 음식 섭취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치아교모증이나 턱관절 장애는 단순히 치아의 이상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 섭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만약 이런 음식물들을 섭취할 때는 도구를 이용해 치아와 관절에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을의 커피한잔, 과일 한조각도 조심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커피와 과일을 섭취할 때에도 치아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따뜻한 커피한잔은 여유를 줄 수 있지만, 치아 변색의 가장 큰 원인이다. 커피를 즐겨 마실 경우 치아 표면의 미세구멍으로 갈색 색소가 들어가 착색이 진행되어 노랗게 변색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거나 구강 청결제로 입안을 헹구 색소침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커피의 설탕과 시럽, 크림은 치주염이나 충치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커피를 마신 후 이런 성분들이 치아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을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과일 역시 마찬가지다. 과일의 섬유질은 씹는 과정에서 이를 닦아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당분은 치아를 썩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식후 과일을 먹은 후에 양치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고, 양치 후에는 과일이라 하더라도 자제하는 것이 치아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치과 류재준 교수

## 음식정보

##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 가을의 별미, 영양까지 짝 찻네!!




예로부터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전어 머릿속에 깨가 서 말' 등, 가을전어와 관련된 속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힘든 시집살이에 집을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할 정도로 맛도 좋고, 고소하다는 의미이다. 왜 유독 가을 전어가 유명한 것일까? 맛 뿐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만점인 전어에 대해 알아보자.

###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전어

전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라이신(lysine), 트레오닌(threonine), 트립토판(tryptophan)등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섭취에 필수적인 단백질 성분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봄철 보다 가을철에 3배 이상 증가한다. DHA는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EPA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어린이에게는 두뇌 발달, 노인에게는 치매 예방에 좋은 생선이라 할 수 있다.

### 가을에 살이 올라 최고의 맛

전어는 가을이 되면 월동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때가 살이 가장 통통히 올라 맛이 좋고 뼈도 부드러워져 뼈째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먹으면 갈습 섭취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전어는 2년생 이상, 길이가 15cm 이상은 되어야 지방함량이 많아 맛이 있으며, 구이 등으로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회로 먹을 때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다. 굽는 과정에서 DHA와 무기질 등이 일부 파괴되기 때문이다.

전어는 지방이 많은 생선으로 싱싱할 때는 비린내가 없지만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하기 쉽고 비린내가 잘 난다. 따라서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요리하거나 요리용술이나 식초를 조금 첨가하면 육질도 단단하게 하고, 비린내도 없앨 수 있다. 특히 구이로 먹을 때는 2% 가량의 소금을 20~30분전에 뿌려 놓았다가 술에 적셔서 구우면 생선의 표면이 단단해지므로 부서지지 않고 비린내도 제거할 수 있다.  글·사진 | 원내기자 송보라(간호부)



## ‘외래환자 약국 선택권 전 국민 서명운동’ 실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은 지난 9월 7일 오전 11시에 1층 로비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상철)와 함께 ‘외래환자 약국선택권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안산병원 최재현 원장, 김윤수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 국민 서명운동 공동추진 위원장(서울시병원회 회장, 전 고려대 교우회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과 안산병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재현 원장은 “간혹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길을 건너 병원 밖 약국까지 가는 모습을 목격하곤 한다”며 “환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수 위원장은 “잘못된 의약분업의 시행이 벌써 11년이나 흘렀다”며 “환자불편과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외래환자 약국선택권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규발령자 임명장 수여식 개최



9월 8일 오후 2시에 소강당에서 정규발령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현 원장, 이종길 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 등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재현 원장은 “발령 받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언제나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길 바란다”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고, “서로 배려하며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 ‘연제발표 우수상’ 수상



안산병원 비뇨기과 박재영, 구로병원 비뇨기과 윤덕기 교수팀이 지난 8월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 제 24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제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럽 전립선암 검진 무작위 연구(European Randomiz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ERSPC)의 연구 책임자인 Fritz

H. Schroder와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진 점에서 차별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의 인종적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립선 조직 생검을 시행하기 전 한국인의 전립선암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는 서구의 예측 모델보다 한국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안된 고유의 예측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세계 최초로 증명해 보인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립선암 예측율이 20~30% 정도인 기존의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비뇨기과 연구진 외에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및 성신여대 통계학과 교수진과의 협동 연구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웹사이트(<http://pcrc.korea.ac.kr>)에서 누구나 쉽게 결과를 알 수 있다.

## 8월의 퇴원예고율 우수 진료과 선정



안산병원은 퇴원예고제 활성화를 위한 8월 퇴원예고 우수 진료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8월의 퇴원예고 우수 진료과에는 퇴원 예고율 79.72%, 퇴원 약 처방 성공률 62.26%를 기록한 소아청소년과가 선정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퇴원 환자 수에서도 212명으로 가산점을 추가했으며, 시상과 함께 퇴원 예고 우수 진료과 지원금까지 차지했다.

또 8월 2차 퇴원예고 우수부서에는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평균퇴원 예고율 80.15%, 퇴원약 처방성공률 72.79%를 기록한 51병동이 선정, 두 번째 피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퇴원 예고제란 퇴원 전 환자에게 퇴원 계획을 알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퇴원시간을 앞당겨 병원 경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퇴원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퇴원 예고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병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 CP(Critical Pathway) 중간보고회 개최



적정진료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2011년 CP(Critical Pathway)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고회에서 차상훈 진료부원장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안산병원 CP 개발현황 및 CP 개발 지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해당 진료과에서는 개발 진행 중인 현황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현재 안산병원에서 개발 진행 중인 CP는 총 8개 진료과 9개 CP로 안과 Hotz operation, BLR recession (B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등이다. CP 중간보고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CP 개발을 통해 진료과정을 표준화하여 환자에게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설명자료 등이 미리 제공되어 병동 및 타 부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무더운 여름을 즐거운 음악회와 함께



환자를 위한 음악회가 7월 30일 오후 3시 30분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이날 음악회에서는 2003년부터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조이폴 밴드가 함께했으며 100여명의 환우와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안산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이 긴 투병생활에 지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길 바라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간호부 뷰티플러스 행사 성료



간호부 서비스향상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2011년 간호부 ‘제가 먼저 소통하겠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Beauty Plus’ 행사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현주 수간호사의 강연(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나의 준비)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이미지와 태도, 의사소통법 등을 교육, 내·외부 고객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고 나아가 병원의 이미지 향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연에 이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사가 간호사들에게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들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한 간호사는 “유니폼과 잘 어울리지 않는 화장법이 어색해 보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배운 화장기법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미소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산병원 간호부 서비스향상위원회는 ‘Beauty Plus’ 행사를 비롯해 분기별로 열리는 영화관람 등 간호사들의 감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안산대학 간호과 학생 대상 BLS Provider 교육 실시



‘2011년 1차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교육이 7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산대학교 간호과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BLS Provider란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미국심장협회가 공인한 전문적 교육 과정이다. 특히 이번 안산대학교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응급의학과 조한진 교수가 교육을 총괄하고 박종수 응급의학과 교수, 간호부 이경진 간호팀장, 이종란, 정금옥, 손명희 수간호사가 직접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 1:1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이론과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기초지식, 심폐소생술 실행 방법, 인명구조를 위한 실습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실습에서는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통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고, 의식확인, 구조요청, 기도유지, 호흡확인, 구조호흡, 흉부압박 등을 직접 실시해 봄으로써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료예약센터  
1577-7516  
응급의료센터 : 031-412-5381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래 진료시간표

\* : 선택진료 의사  
기준일 : 2011년 09월 26일  
http://ansan.kumc.or.kr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 진료 분야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 진료 분야		
내과	소화기	*최재현	월,목		대장·소장질환, 치료내시경	정신과 (5140)	*김용구	월,수	화,수	우울,불안증,공황장애,정신분열증,스트레스,알콜중독	
		*이상우	화,금	화	위·식도·소장질환, 소화관운동질환, 치료내시경		*한창수	화,목	월,화	우울증,스트레스, 기억력클리닉, 치매	
		*임형준	월,화,목	화,목	간(간염,간암,간경변),(매월 4주 B형간염 초진클리닉)		*고영훈	월,수	월,수	정신분열증, 여성정신의학, 뇌손상후유증, 알콜중독, 약물	
		*구자설	목	월,목	대장·소장질환, 치료내시경(토요일:3주)		양재원	화,목,(금)	목	소아청소년, 여성정신의학, 기분장애	
		*정성우	월,수	수	위·식도질환, 소화관운동질환, 치료내시경(토요일:1주)		일반의	화	목,금	정신과질환	
		*현종진	화,금		소화기질환, 담도, 췌장질환(토요일:2주)		신경과 (5150)	*박문호	월,수,목	수	뇌졸중,치매(목:오전-치매 재진환자만 진료)
		*정록선	수,금	금	소화기질환(토요일:4주)			*권도영	화,목,	월,목	파킨슨,뇌졸중,두통,이상운동장애(화:오전-파킨슨 재진환자만)
		김승영		월	소화기질환			정진만	월,화,금	수	간질,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화:오전(뇌혈관질환 및 동맥경화클리닉) 금:오전(간질클리닉)
		윤아일린		수,금	간및소화기질환			일반의	금	화,금	두통, 어지러움, 간질
		권보성		금	소화기질환			안과 (5160)	*백세현		월,목
	박은범		화	소화기질환	*김승현	화	금		사시,약시,소아,녹내장,신경안과,(사시,소아,신경,약시,녹내장클리닉)		
	이동훈		목	소화기질환	*김성우	(화),목,금	화		망막(당뇨,고혈압성,미숙아),포도막,백내장,녹내장(화요일레이저예약환자)		
	순환기	*송우혁	화,목	월	협심증, 심혈관중재술,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홍통클리닉)	송중석			금	각막이식, 백내장,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콘택트렌즈	
		*안정천		화,목	협심증, 심혈관중재술,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홍통클리닉)	이 화	수,금		수	백내장,안성형	
		임홍의	수		부정맥	일반의	화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김성환		월	목,금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고지혈증, 고혈압	이비인후과 (5170)	*권순영	화	화,목	두경부암, 갑상선암, 인후두질환, 음성장애		
*임상엽		월,금	수	협심증, 심혈관중재술,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홍통클리닉)		김양수	목	수	두경부암, 두경부양성종양, 음성장애(토요일2,4주)		
*김용현	수,목	월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이승훈		월,수	수	코골이, 부비동수술, 코성형,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호흡기	신 철	수	(월, 수)	수면장애(수면무호흡, 코골이, 기면증등), 폐질환 수면클리닉-월,수 오후		*최지호	화,목	목	부비동염, 수면무호흡증, 알레르기비염, 코성형		
	*김재형	화,목	화,목	호흡기질환		전영준	금	월,금	알레르기비염, 코성형, 부비동염,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김세중	금	월,수	호흡기질환		*최 준	금	월,금	중이염, 어지럼증, 난청(보청기), 안면마비, 이명, 귀종양		
	신장	*차대룡	월,수,목	수		신장이식, 사구체신염, 부종, 투석	전형진	월	화	이명, 난청(보청기), 중이염, 어지럼증, 안면마비(토요일1,3주)	
		*강영선	화,금	화,목		고혈압, 당뇨, 신질환, 혈뇨, 부종, 투석, 이식	일반의	수		이비인후과질환	
차진주		월,금		부종, 투석, 혈뇨, 당뇨		성형외과 (5070)	*윤윤식	월,목	목	유방, 체형교정, 미용(눈,코,안면주름), 선천성기형, 수부재건	
현영울		월,목		고혈압, 당뇨, 신질환, 혈뇨, 부종, 투석, 이식			*등은상	화,금	화	코성형, 주름성형, 악안면성형(두개기형)	
내분비		*김남희	월,화,수	월	당뇨, 갑상선, 비만, 골다공증, 뇌하수체		*김덕우	수	월,수	미세수술, 지방흡입, 안면성형, 귀성형	
	*서지아	화,목,금	화	당뇨, 갑상선, 비만, 골다공증, 뇌하수체	김홍렬		월,금	금	안면부외상, 만성창상관리, 미용성형		
	은채령	수	수, 목	당뇨, 갑상선, 비만, 골다공증, 뇌하수체	피부과 (5180)		*김일환	월,화,목	(목)	여드름, 박피, 액취증, 모발, 피부암, 백반증, 레이저치료 (목:오후-레이저클리닉예약환자만)	
	*박대원	월, 목	수, 목	열, 열병, 염증성질환		*손상욱	월,화,목	월,목	아토피, 피부미용, 알러지성피부질환, 구강점막질환 (화요일1,3주 오전 레이저, 보톡스, 필러 클리닉예약환자만)		
	*최원석	화,수,금	월	열, 열병, 염증성질환		손수빈	수(격주)	수,금	여드름, 두드러기, 아토피, 건선, 레이저치료		
중양혈액	*최인근	화,금	월,수	중양질환, 혈액질환, 항암치료		김재환	화	화	건선, 알러지성피부질환, 광선치료		
	*성화정		해외연수			일반의	수,금,토	월~금	광선치료, 건선, 백반증, 알레르기		
	이세련	월,수,목	화	혈액암, 중양, 혈액질환, 항암치료, 빈혈	비뇨기과 (5190)	*배재현	월,목	목	배뇨장애, 전립선, 여성질환, 요실금, 복강경수술, 결석, 남성학		
	류마티스	*최성재	수,금	월,수		류마티스질환	*박재영	화,금	화	중양, 남성학, 복강경수술, 전립선결석, 배뇨장애	
	내과일반	일반의	토	월~금		일반진료	*김재현		월,수,금	소아, 결석, 전립선, 중양, 남성학, 복강경수술	
상부위장관외과 (5030)	김승주	월,목	화	위암, 상부위장관, 탈장		일반의	수		일반비뇨기질환		
	*박성흠	금	화	위암, 상부위장관, 탈장		재활의학과 (5330)	*김동휘	화,수	목,(금)	뇌졸중, 말초신경병증, 언어및인지재활, 통증,(금:오후격주 족부클리닉)	
	*김종한		해외연수		*박병규		월,금	수	뇌졸중재활(운동기능), 어깨통증, 보조기		
	간담체외과 (5030)	*송태진	월,금		간, 췌장, 담도질환, 장기이식, 혈관		조남순	목	월,화,금	스포츠의학, 근골격계통증, 소아재활	
		*한형준		해외연수			일반의	금	수	재활의학과일반	
이진석		수,목	수,목	간, 췌장, 담도질환	가정의학과 (5360)		김도훈	월,수,금	월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노인병	
대장항문외과 (5030)		*엄준원	화	목		대장항문학	남기은	화,목	금	금연, 비만, 여행의학	
		*민병욱	수	월		대장항문학	치과 (5370)	*류재준	(화),금	월,(화),금	임플란트클리닉, 심미보철, 턱관절클리닉 (화:오전-임플란트클리닉, 화:오후-턱관절클리닉)
	정성엽	화,금,토	화,금	대장항문학		*장현석		월,목	목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외과	
	유방내분비외과 (5030)	*손길수	월	수		유방, 갑상선, 내분비학		이서영	(월),화,(목)	(월),화,(목),금	심미보철, 가철성치의, 임플란트, 틀니
		*유우상	토	화,금	유방, 갑상선, 내분비학(토:1,3,5주)	송창규		(화),수,(금)	수,(금)	보존과(신경치료, 충치치료)	
정형외과 (5040)		*김성곤	월	수	인공관절, 척추	일반의		월	월	치과일반	
		*박정호	수	월	어깨팔꿈치관절, 스포츠의학	응급의학과 (5381)	문성우	월,수,금	금	응급의학	
		*박종웅	화,목	화	수부외과, 미세재건외과, 족부		한갑수	토	월,화	응급의학(토요일 순환근무)	
	*서동훈	수,금	화	고관절, 외상(토:교대진료)	조한진		목,토	수	응급의학(토요일 순환근무)		
	*배지훈	목	월,금	무릎관절, 인공관절, 무릎인대손상,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토:교대진료)	박종학		화,토	목	응급의학(토요일 순환근무)		
홍재영	월	수,목	척추질환, 소아(토:교대진료)	산업의학과 (5390)	박종태		화,목	화	보건관리, 직업성질환, 환경의학		
이정일	토	토	어깨팔꿈치관절, 수부외과, 정형외과일반(토:교대진료)		고재우	수	수,목	건강진단, 직업성질환, 환경의학			
신경외과 (5050)	*박정울	월,(화),목	월,(화)		만성통증질환, 척추질환, 손떨림증및간질, 두통 (화-종일클리닉)	일반의	월,금	월,금	산업의학과일반		
	*임동준	화,금	(월),(목)		뇌혈관질환, 뇌종양(월)(목)오후-뇌혈관조영술(시술)	영상의학과 (5220)	*차상훈	월,화,수,금	수	복부, 비뇨생식기계	
	*김세훈	수,금	월,(수)		퇴행성및외상성척추질환, 척추종양, 말초신경질환(수:오후 척추clinic)		*김백현	월,수,금	월,수,금	골,관절,척추,사지혈관	
	*김상대	월,(수)	목	뇌종양, 소아뇌질환, 중증뇌손상(수:오전 뇌종양클리닉예약환자만)	*정환훈		수,금	수	중재,복부		
	홍기선	화,목,금		퇴행성및외상성척추질환, 두부외상	*이기열		월,수	화,목,금	흉부		
흉부외과 (5060)	이인성	화,수	화,수	일반흉부수술, 선형성심장수술	서보경		월,화,수	금	유방		
	*신재승	월,수	월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증	이영훈		월,수	신경두경부, 갑상선			
	*조원민	화,목	목	심장판막질환, 부정맥수술, 말초혈관질환수술, 다한증, 최소침습수술	이승화	목,금	목	중재,복부,심장			
	*민병주	금	금	일반진료, 선천성심장병	제보경	수	화,목	소아영상의학			
	일반의		금	일반진료	서형석		해외연수	신경두경부, 갑상선			
사부인과 (5080)	*김해중	화,목(수)	(수)	고위험임신, 주산기질환(정밀초음파클리닉-수요일종일)	송성은	목,금	월,수	유방			
	*이낙우	월	(화),목	부인과종양, 복강경수술(양성,악성질환), (화:오후 자궁경부암 질화대클리닉)	염석규	월,수,목	월,화,수	복부, 비뇨생식기계			
	*김재원	금	수	부인과종양, 복강경수술	방사선종양학과 (6850)	*윤원섭	월,수,금	월,수	두경부암, 간담도계암, 소화기암, 유방암, 부인암, 폐암, 비뇨기암, 소아암, 림프종, 육종, 뇌종양, 전이암		
	*이경옥	수	월	불임, 부인과내분비학, 폐경기질환(불임클리닉-예약환자만)		일반의	목	목	전이암		
	전수경	금	화	부인과내분비학, 일반부인과		통증클리닉 (6744)	육세진	월,화,수,(목),금	월,수	통증치료(요통, 경추통클리닉)목:오전 수술실 block 클리닉	
이중현	월,금	월,금	부인과종양, 일반부인과(토:9월-2012년 2월)	핵의학과 (5250)			일반의	월~금	월~금	핵의학과일반	
소아청소년과 (5090)	*최병민	화,(금)	금				신생아(신생아클리닉-금 오전)				
	*장기영	목	(화),수,(목)		심장(심장클리닉-화오후)(심장초음파-목오후)(토:2주)						
	*김윤경	(화)	월,화,목		감염, 예방접종(예방접종클리닉-화 오전)						
	*은소희	수,금	(월),수		간질, 발달, 수면, 두통(신경클리닉-월 오후)(토:5주)						
	*임형은	금	화,목,(금)	신장, 위장관(신장클리닉-금 오후)(토:4주)							